

# 도덕적 분노가 살아숨쉬는 실천 지식인

바스키 지음 《츨스키, 끝없는 도전》

강준만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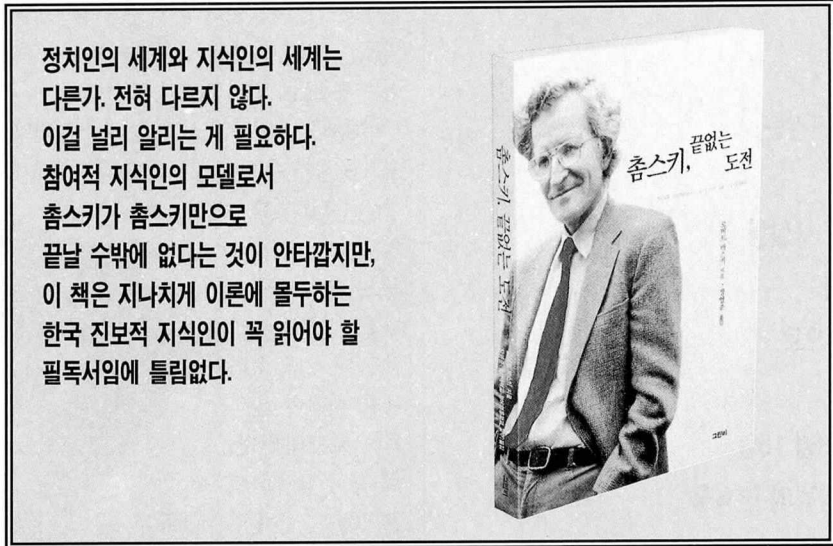
미국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영어과 교수 로버트 바스키가 쓴 《츨스키, 끝없는 도전》(장영준 옮김)을 읽는 데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언어학자로서의 츨스키에 더 관심을 갖는 독자도 있을 것이고 사회운동가로서의 츨스키에 더 관심을 갖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언어학자와 사회운동가를 아우르는 지식인으로서의 츨스키를 외적 활동 중심으로 관찰하고 싶어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고 '지식인의 행태'라는 문제 중심으로 관찰하고 싶어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자'의 딱지

이 책은 어느 쪽의 시각을 갖고 읽건 아주 재미있다. 물론 그 재미는 이미 츨스키를 꽤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한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츨스키를 전혀 모르는 독자들에게 매우 따분하고 지루한 책이 될 것이다. 나는 '지식인의 행태'라는 문제 중심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 한국의 지식인 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유익한 안목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 많아 깜짝 놀랐다. 어느 나라건 지식인 사회의 문제란 비슷하거나, 이 글은 그런 놀라움을 소개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츨스키에게 붙인 딱지는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자'다. 이 딱지는 타당한가? 이 물음은 기존체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잠깐 내버려두자. 기존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범 개혁세력' 내부에서도 츨스키는 '이단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자'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츨스키가 되돌려주고 싶은 딱지는 아마도 '패배주의자'일 것이다.

츨스키는 '세뇌'라는 개념을 신봉한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류 언론매체와 교육체제에 의해 세뇌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명백한 진리에 대해 둔감해지고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들, 이를테면 진보적 사회운동의 실현을 성취할 수



**정치인의 세계와 지식인의 세계는 다른가. 전혀 다르지 않다.  
이걸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  
참여적 지식인의 모델로서  
츨스키가 츨스키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 책은 지나치게 이론에 몰두하는  
한국 진보적 지식인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임에 틀림없다.**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패배주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패배주의'도 '세뇌'의 결과인 것이다!

츨스키가 말하는 패배주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도 해당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츨스키와 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사고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츨스키가 보기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전략'은 현상유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최소한의 실천에 둔감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전략적 사고는 윤리의 문제를 과학으로 대체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늘 전략에 관한 논의만 무성할 뿐 실천은 좀처럼 나오질 않는다. 아니 전략을 앞세워 윤리를 외면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옹호하는 관변 지식인들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아니다. 바로 츨스키다. 전략적 사고가 아닌 윤리적 사고야말로 실천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인 것이다. 이는 츨스키의 글쓰기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츨스키의 글에는 도덕적 분노가 살아숨쉬는다. 그는 세속적 존경을 한몸에 받은 정부관이나 학계 인사를 거론할 때 '파시스트' '탈법적' '부패한' '기만적인' 등과 같

은 거친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는 많은 적을 만들어냈다. '범 개혁세력' 내부에도 츨스키의 적이 많다. 츨스키는 '예언'이 아닌 '실천'에 주력한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대해 좀더 명료한 분석과 해설을 내놓을 수 있었고, 그래서 다른 많은 지식인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츨스키는 미국의 문제와 관련하여 추상적·우회적이고 간접적·거시적인 어법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현학도 거부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미국과 미국 지식인 사회의 악덕을 공격해왔다. 그 결과 그는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왔다.

## '끝없는 도전'의 배경엔 소홀

현학을 거부한 지식인.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지식인. 사실 이진 모순이다. 그러나 그 모순은 츨스키라는 이름의 실체를 규명해준다. 츨스키는 지식 엘리트들이 '촌놈'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순한 사실을 현학적 언사로 포장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내가 보기엔 그런 의도보다는 그들 내부세계에서의 인정과 경쟁이 더 큰 원인이다. 츨스키는 "지금의 상아탑 정신이란 학자들에게 지적 자유가 보장돼야 할 뿐 아니라

송배받을 수 있는 지위와 특별한 사회적 특권이 부여되고, 오직 엘리트 집단의 정회원들끼리만 대화할 의무가 강요되는 사고방식"이라고 정의한다. 그러한 경멸적 설명은 타당하되 좀 부족하다.

츨스키는 대학 내부에서의 인정과 경쟁을 아주 젊은 나이에 초월해버린 지식인이었다. 츨스키에게 언어학에서 쌓은 불멸의 업적이 없었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이름은 오래전에 사망했을 것이다. 츨스키의 '끝없는 도전'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서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세상은 '끝없는 도전' 그 자체만으론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이미 언어학에서 쌓은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따라붙기 때문에 그의 강연회에도 사람이 몰린다.

미국의 대학에서 사교적 재능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지식인들은 주류 속으로 잠입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벌인다. 그러나 츨스키는 그러한 기술을 구사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일찍 훌쩍 커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전선에서 주류 기관지들에 의해 매도됐고, 지식인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무시당했으며, 세세한 검열을 겪어야 했다. 바스키는 츨스키가 걸어온 험난한 길을 그렇게 우연적으로 묘사하지만, 츨스키의 '끝없는 도전'을 가능케 한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점은 소홀히 함으로써 '지식 사회학'이라는 주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한계를 드러내보인다.

정치인의 세계와 지식인의 세계는 다른가? 전혀 다르지 않다. 이걸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적 지식인의 모델로서 츨스키는 츨스키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 책은 새로운 유형의 '지식 사회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이론'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임에 틀림없다.❖

그린비/A5신/200면/13,000원